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문의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배상률 부연구위원
전화: (044) 415 - 2220
팩스: (044) 415 - 2369
drbai@nypi.re.kr www.nypi.re.kr

감수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Cen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research, education, advocacy


Southern Cross
University

Child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unicef 
Office of Research

UNIVERSITY
OTAGO

Te Whare Wānanga o Ōtago
NEW ZEALAND

국문판 제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감수 **unicef**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15

사례연구

ERIC의 핵심목표 중 하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윤리적 사안에 대한 이야기, 경험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기여로 이뤄진 사례연구는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렵고 경쟁적인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7장 사례연구는 다양한 국제적 상황과 여러 다른 연구 패러다임을 모두 반영하며, 아동 연구에 대한 사고를 발전시키고 윤리적 관행을 개선하도록 구성했다.

- 연구자는 장애 아동이 연구 과정에 참여하도록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아동의 의견이 부모가 있는지 없든지 간에 가장 우선시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
- 성인과 아동의 의견이 충돌할 때 연구자가 내리는 결정은, 장애 아동에게 연구 과정에 대한 아동 참여의 관여도와 통제권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 연구 과정에서 장애 아동이 선호하는 참여 방식은 존중돼야 한다.
- 만일 아동이 혼자 인터뷰하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아동이나 부모가 기분이 상한다면 연구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그래도 부모가 아동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연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동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가 동석한 자리에서 아동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 아동이 부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인터뷰하고 싶어하는 경우, 연구자는 아동의 의견이 우선시되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 연구자가 아동을 단독으로 만날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참고문헌

Kelly, B. (2007) Methodological issues for qualitative research involving learning disable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Theory and Practice, 10, (1), 21-35.

Kelly, B (2005) ‘Chocolate... makes you autism’: impairment, disability and childhood identities. Disability and Society, 20, (3), 261-275.

Kelly, B., McColgan, M. & Scally, M (2000) ‘A Chance to Say - Involving children who have learning disabilities in a pilot study on family support servic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4, (2), 115 - 127.

자료제공: Dr Berni Kelly, Senior Lecturer in Social Work, Queen’s University Belfast

사례연구 19: 아동 보호와 기밀 유지: 아동 폭력, 학대, 방치 경험이 있는 아동 조사

연구배경:

2008년, NSPCC(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국제 아동 폭력 방지 협회)는 영국의 가정, 학교, 지역 공동체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 현황과 영향을 다루는 국가 수준의 포괄적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영국 사상 최초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유년 시절과 지난 1년간 경험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묻는 연구였다.

2009년에 6,196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가구조사가 진행됐다. 그 중 2,160명은 11살 미만 아동의 부모·보호자였고, 2,275명은 11-17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이었다. 그리고 1,761명은 18-24세의 젊은이들이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nspcc.org.uk/childstudy 참고.

윤리적 문제:

대부분의 윤리적 지침은 연구자들에게 아동 보호 문제를 다룰 때는 기밀 유지가 제한됨을 참가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NSPCC 연구는 연령에 따른 CASI(Computer Assisted Self Interviewing; 자계식 조사) 방법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개별적으로 그들의 경험을 물어봐, 부모가 아동에게 한 질문이나 아동의 답변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CASI에서는 인터뷰 진행자 역시 참가자의 답변을 볼 수 없고, 참가자가 학대 경험에 대해 말했는지도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인터뷰하는 성인은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영국은 아동 학대를 보고해야 할 의무방식이 없다. 아동이 자신의 폭력과 학대 경험을 보고하는 데 대해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조사를 실시하는 게 윤리적인가? 만일 아동이 당장 피해를 입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기밀 유지를 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만일 기밀 유지가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감으로 제한된다면, 조사의 목적과 기밀 유지의 한계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부모를 놀라게 하거나 기분 상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연구는 상대적으로 아동 보호, 지원, 상담 서비스가 잘 발달된 고소득 국가에서 진행됐다. 설문조사 참가자에게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연락처가 담긴 소개 책자를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이를 통해 부모, 아동, 그리고 청소년은 원할 경우 도움이나 상담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만일 아동이나 청소년이 기분이 상했거나 그 이상의 도움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연구팀에게 알릴 수 있는가? 도움을 청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폭력 가해자가 가정의 부모이거나 동거인일 경우,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가?

선택방법:

상담은 아동 보호 전문가와 연구 전문가, 부모, 아동, 청소년, 학대로부터 생존한 청소년들까지 포함해 진행됐다. 이렇게 될 경우, 연구팀은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 전문가들은 기밀 유지를 제한하고, 조사에서 더 많은 도움이나 지원을 원하는 아동과 즉각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동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권장했다. 학대에서 벗어난 젊은 생존자들은, 관련 청소년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만일 청소년이 지역 당국에 학대를 보고하고 싶지 않으면, 압박감을 받거나 그들의 의지와는 다른 조치가 취해지면 안 된다고 했다. 따라서 청소년이 기분이 상했는지 또는 신뢰 가능한 아동 보호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지와 같은 질문을 설문조사 중 중요한 지점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를 위해 빨간 깃발 알림 시스템과 검토 과정이 개발됐다. 인터뷰 내용은 데이터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사 중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답변들이 나올 경우, 경고의 의미를 뜻하는 빨간 깃발이 활성화됐다. 인터뷰 진행자와 가족은 경고가 언제 활성화됐는지 알 수 없었고, NSPCC 연구팀만이 이 알림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빨간 깃발의 경우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시, 참가자들의 연락처는 검토를 다 마치기 전까지는 조사 응답지에서 삭제되지 않았다. 아동 보호 전문가들과 경고, 검토 그리고

위탁 과정에 대해 엄격한 절차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빨간 깃발이 활성화되거나 응답자가 전문가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 모든 인터뷰는 매일 NSPCC로 보내졌고, 연구팀에서 두 명의 팀원이 이를 검토했다.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인터뷰를 실시한 같은 날에 ChildLine 상담 전문가 또는 NSPCC 아동 보호 서비스에 보내져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빨간 깃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적정 수준은 ChildLine의 아동 보호 전문가들과 합의했다. 몇몇 고려된 사항은 다음을 포함했다: 학대의 심각성과 빈도, 아동이 생명을 위협받는 부상이나 강간을 당했는지, 가해자가 다른 아동도 학대할 가능성은 없는지; 자해나 자살 의도가 있는지;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미 도움과 지원을 받는 곳이 있는지; 이들의 생각과 감정은 어떤지; 아동의 생각과 다르거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위탁 시설이 있는지 등이다.

부모와 아동은 인터뷰에 동의하기 전, 해당 조사는 아동의 안전과 피해에 대한 내용이라고 안내받았다. 상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참가자들이 동의를 협의하는 시점에서, 성적 학대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는 주제들이 나열된 전단이 배포됐다. 참가자들의 답변은 아동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조사 중 화면을 통해, 원할 경우 특정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질문을 건너뛸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부모에게 기밀 유지가 제한됨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응답률은 낮아지지 않았다. 영국에서 진행된 다른 가구조사보다 더 긍정적인 수치인 60.4%의 응답률을 보였다. 191개의 검토된 사례 중 총 85개의 사례가 위탁됐는데, 35개는 ChildLine, 44개는 개인 상담 전문가, 그리고 6개는 NSPCC 전화 상담 서비스에서 맡았다. 4건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연구 참가자의 동의 하에 정보가 공유됐다.

인터뷰 중 참가자들에게 조사에 참여한 기분이 어떤지 물었다. 빨간 깃발을 표시한 참가자 중 103명(54% 이상)은 조사에 참여한 것이 매우 또는 굉장히 가치 있었다고 했고, 38명(20% 미만)은 조사 도중 기분이 상했다고 답했다(33명의 청소년과 5명의 부양자). 기분이 상했다고 보고한 33명의 청소년 중 27명은 또한 조사에 참여한 것은 적어도 꽤 가치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해당 조사가 어떤 점에서 아동의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연구에 참여해 폭력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연구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폭력과 학대에 관한 경험을 물을 경우 어떤 피해와 혜택이 있는가?
- 젊은 생존자들과 아동 보호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연구에서의 아동 보호와 기밀 유지를 다룰 때 도움이 되겠는가?
-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아동 보호 서비스가 잘 발달된 고소득 국가에서 진행됐다. 서비스가 훨씬 제한적이고, 폭력과 학대 피해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적대적인 곳에서 비슷한 연구를 할 때, 아동과 청소년이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 만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매우 제한적이라면, 연구를 후원하는 이들이 해당 아동들을 직접적으로 돕기 위해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해야 하는가?

자료제공: Lorraine Radford, Professor of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Preston, UK.

사례연구 20: 가정 외 보호에 있거나 벗어나 있는 청소년에 대한 동료평가 연구

연구배경:

Care Matters : Time for Change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7) 보고서는 가정 외의 보호를 받거나 이마저 받지 않는 청소년들과 또래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Right2BCared4는 청소년이 돌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으로 전환하기 위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만들어진 계획 중 하나다. 해당 연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 청소년은 18세가 될 때까지 돌봄을 받아야 한다;
- 청소년은 돌봄에서 벗어날 때까지 의사결정에 대해 더 큰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 청소년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준비가 제대로 돼 있어야 한다.

The Centre for Child and Family Research와 Loughborough University는 NCAS(National Care Advisory Service)와 협력해 청소년들이 평가에도 활발히 참여하도록 동료평가 연구 방법을 도입했다. 이는 개발 도구부터 결과 분석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모든 면에서, 돌봄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훈련과 지원을 받도록 했다(Edwards, 2011; Munro 외, 2010; Munro 외, 2011; National Care Advisory Service and SOS Children's Villages, 2012 참고). 잘 관리된 접근방식은 연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권한을 줄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아동 복지 정책과 적용 사례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윤리적 도전 과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참가자와 또래 연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윤리적 문제:

Right2BCared4 평가의 일환으로, 가정 외의 보호를 받거나 이마저 받지 않고 돌봄에서 벗어난 아동들에게 설문조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청소년들은 이 설문을 개별적으로 (온라인이나 하드 카피로) 제출하거나 또래 연구자와 전화 통화로 진행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 그런데 전화 인터뷰 중에 조사 참가자가 또래 연구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경우가 있었다. 그 결과로 또래 연구자는 통화를 중단했다.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지역 당국의 한 직원에게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알렸다. 해당 직원은 연구팀의 한 팀원에게 연락해 이러한 성적 발언을 누가 했는지 조사 참가자가 속한 지역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사전 동의 과정에서 기밀 유지의 한계에 대해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익명성과 기밀 유지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만일 아동이나 청소년이 타인에게 상처를 받거나 타인의 행동으로 상처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구팀에게 해당 아동이 속한 지역의 사회복지사가 관련 내용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지역 당국의 고위 책임자로부터 의견을 구해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발 행 2014년 12월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쇄처 아르빛

사전 승인 없이 본 간행물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44) 415-21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술정보관)